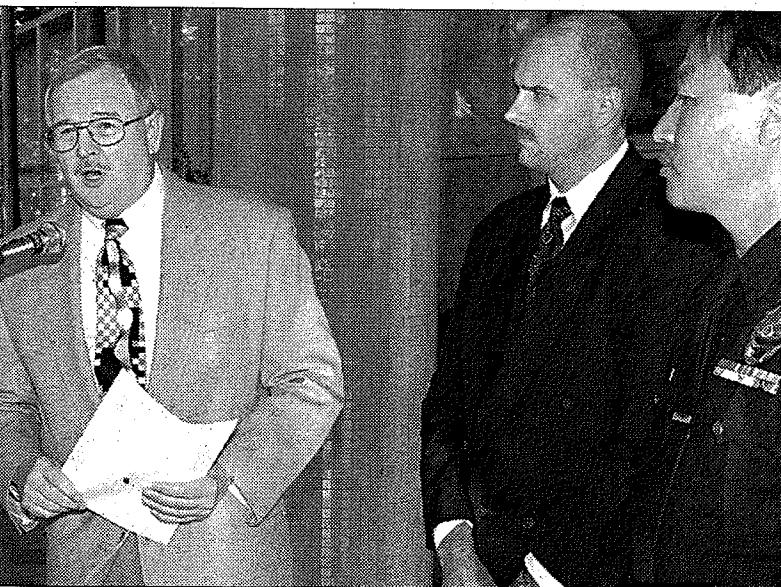


FTC 소비자보호국의 베시 브로더
부국장은 지난 9월 연방금융위원회에

김경원 기자
<kkwn@joongangusa.com>



신분도용 용의자 김성순씨를 공개수배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전홍철 기자>



총영사관 앞 무궁화 식수

범미주무궁화협회(회장 노수복)와 한국근우회(회장 김복림),
다문화협회(회장 이명희) 회원들이 2일 LA 총영사관저 앞에
13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식수하고 있다.

<전홍철 기자>

'시바 비전' 콘택트렌즈 리베이트

지난 12년간 '시바비전'의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소비자는 앞으로 일회용 렌즈 재구입 시 35달러의 현금리베
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바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간의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시
바는 지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자사의 일회용 콘택트 렌
즈를 구입한 소비자가 앞으로 다시 일회용 렌즈를 구입할
경우 35달러의 현금 리베이트와 함께 할인 쿠폰 등을 제공
하기로 했다.

징용피해 증거 만주일대 포함

재판부 피고측 연기요청 기각…조속 증거수집 지시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인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이 증거수집작
업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LA에 있는 신혜원, 케네스 한, 베리 피셔
등 미국내 한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단은 1일 오전 LA지방법원 59법정(브루스
미첼 판사)에서 피고측 변호인단과 두번째
절차심리를 갖고 본격적인 증거 및 증인수집
작업에 들어갔다.

1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미첼 판
사는 원고측 변호인단에서 요구한 ▲증거수
집 범위를 본국 전역과 만주일대까지 포함시
키고 ▲증인일 경우 당시 일본회사에서 근무
하던 책임자나 일반 직원까지 해당자를 확대
하며 ▲일제 징용기간을 원고 정재원씨가 근

다.

이날 피고측 원고인단은 현재 샌프란시스
코 연방지법에서 계류중인 케이스 판결이나
을 때까지 이번 케이스의 법적 진행절차를 연
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첼 판사는 재판 진
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90일동안 증
거수집을 마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측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증거 및 증인신원에 대한 자료를 3번

째 절차심리가 열리는 오는 2001년 2월 14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재원씨 등 한인 징용 피해자들은 작년 10
월 4일 가주에서 지난 99년 7월 28일 통과된
가주징용배상 특례법에 의거, 일본정부를 상
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에 들어갔었
다.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

부 음

나성영락교회 김봉아 장로

입관예배는 5일(일) 오후5시 한국장의사
에서 열리고 영결예배는 6일(월) 오전10시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집례는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사가 맡는